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 교류기금 NEWS



우리 함께 가교가 되어

公益財団法人

日韓文化交流基金

THE JAPAN-KOREA CULTURAL FOUNDATION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로고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가교'를 형상화한 새 로고에는 사업에 참여하신 참가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본과 한국을 잇는 가교라는 메시지와 함께,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CONTENTS

- 1 새 로고 소개
- 2-3 활동 소개·사업 실적
- 4-6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
 - 심포지엄 <조선통신사라는 '지혜'>
 - 강연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 교류> 강사: 니시노 준야
 - 강연회 <이웃 나라 사람들과 만나다 — 나와 한국> 강사: 사이토 마리코
 - 토크 세션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 교류의 미래>
- 7-10 청소년 교류 사업 보고
 - [대학생 교류 사업]한국 청년 방일단 제1단(테마: 후쿠시마와 홋카이도의 한일 교류)
 - [교원 교류 사업]후속 교류로의 확장
 - [고등학생 교류 사업]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류(테마: 농업)
 - [대학생 교류 사업]일본 외무성·대한민국 외교부 주최 상호 파견 사업
- 11 활동 보고 JKAF(Japan Korea Alumni Forum) 대학생 방한단 OB-OG 조직
- 12 사업 보고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우)101-0061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 미사키초 2-21-2 PRIME 스이도바시 빌딩 5층
tel. 03-6261-6790 fax. 03-6261-6780

<https://www.jkcf.or.jp>



Web



Facebook



X



Instagram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사업 실적

1983 ~ 2026.3월



일한문화교류기금은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인적 교류, 학술·문화 교류의 증진과 상호 이해의 심화'라는 목적 아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현재까지의 주요 사업 실적 및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누적 실적(2026년 3월 실시 예정 사업 포함)

청소년 교류 사업

대학생, 고등학생, 청년 교원 등이 참가

45,106명

방일단 참가자

30,851명

방한단 참가자

14,255명

※2025년도 실적: 방일 687명, 방한 359명 포함



펠로십 (상대국 체류형 연구 지원)



방일 연구자

721명

방한 연구자

100명

※2025년도 실적: 방일 14명, 방한 2명 포함

인적 교류 조성 (풀뿌리 교류 지원)

1,490건

※2025년도 실적: 32건 포함





청소년 교류 사업

한일 양국의 대학생, 고등학생, 사회인(청년 교원 등)을 대상으로 방일단 초청 및 방한단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중에 학교 방문, 홈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동세대는 물론, 세대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며 상대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방일단·방한단 참가자들은 동창회 조직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참가 경험을 살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방일단·방한단 사업의 경우, 교원 간의 교류가 학생 간의 교류로 이어져 한일 양국의 교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한 공동 수업이나 자매결연으로 발전하는 등 뜻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펠로십 제도

펠로십 사업은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 촉진을 주제로 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한일 간의 지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양국의 학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청장년층 지식인과 우수 연구자 등을 일본으로 초청하거나 한국으로 파견하여 조사·연구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성 제도

인적 교류 조성은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는 한일 양국 국민·단체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국 간의 풀뿌리 교류를 더욱 활성화·다양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연회·심포지엄 등

한국·조선 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자의 전공 분야와 한일 관계를 주제로, 일반인 대상의 강연회를 매년 수차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선통신사를 테마로 한 심포지엄, 양국 청년들이 한일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크 세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의 사업

오랜 역사 속에서 함께 걸어온 한일 양국이 앞으로 더욱 협력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한일 역사가 회의', '한일 역사 공동연구 위원회',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 개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각기 다른 테마의 심포지엄, 특별 강연회, 토크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조선통신사라는 '지혜'>

5월 31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 심포지엄 <조선통신사라는 '지혜'>를 도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총 163명이 참가하였으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당시) 역시 메시지를 통해 조선통신사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제1부에서는 근세 한일 관계의 상징적 존재인 조선통신사에 관해 연구자 4명이 각자의 전문적 입장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치 시스템과 통신사

발표·기조 제언

요시다 미츠오(도쿄대학 명예교수·방송대학 명예교수)

근세 일본과 조선은 '조선통신사'라는 외교 시스템을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이웃 관계를 유지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숨어 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전문가 4명의 발표를 통해 조선 왕조의 정치 시스템과 에도 막부의 의도 등 조선통신사 배경에 깔린 '지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통신사와 쓰시마번(대마도)의 역할

발표

다시로 카즈이(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기존의 조선통신사 연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안정적인 한일 관계에 크게 기여한 쓰시마번의 역할에 다시 주목해 보고자 한다. 에도 시대 260년간 이어졌던 원만한 한일 관계는 쓰시마번의 세심한 배려와 창의적인 노력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통신사와 역관사 — 두 사절단과 쓰시마번(대마도)

발표

이시다 토오루(시마네현립대학 교수)

조선 왕조는 도쿠가와 쇼군에게 파견한 통신사 외에도, 쓰시마번의 영주 가문인 소씨(宗家)에게 '역관사(문위행)'라는 사절단을 파견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막부 말기까지 꾸준히 파견된 역관사는 19세기 한일 관계를 지탱해 온 숨은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라는 칭호에 담긴 의미

발표

기무라 타쿠(주오대학 교수)

12회에 걸쳐 파견된 조선통신사 중 1~3회까지는 사절단을 '회답 겸 쇄환사'라고 칭했다. 이는 3회까지는 조선이 일본을 대등한 교류의 대상인 '교린(交隣)'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사절단 칭호의 변천을 통해 조선의 대일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제2부에서는 연구자 4명이 각 발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온·오프라인 참가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질문: 과거 쓰시마번이 수행했던 한일 가교 역할을 현대에는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

답변(다시로 교수): 과거 국제 관계는 서구 중심의 시각이 주류였으나, 이제는 아시아로 그 시선이 옮겨오고 있다. 우선 우리 개개인이 상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질문: 조선통신사의 '지혜'를 현대의 외교 관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답변(요시다 교수): 역사를 그대로 현대에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이문화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3시간 반에 걸친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참가자가 조선통신사의 새로운 면모와 현대에 전하는 힌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

니시노 준야 교수(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 겸 동 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사이토 마리코 한국어 번역가를 강사로 모시고, 2025년 3월과 9월에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식으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1일 개최

특별 강연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 교류

강사: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교수 겸 동 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한일 관계 60년을 되돌아보며 한일 교류의 과제와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보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세대 간 의식 차이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 후에는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가자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실제로 교류 활동에 참여 중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한일 교류에 참여하는 의의와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한국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등 실천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소감

- 한일 관계의 분기점이 된 역사적 사건부터 정치·외교적 흐름을 되짚어보고, 최신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학생 교류 단체로 활동하면서 '우리 활동이 10년, 20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경험한 사건이 다르기 때문이며, 지금의 젊은 세대가 주역이 될 때 한일 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현재의 활동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갈 존재를 육성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여론을 형성하는 국민의 의식을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며, 우리가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 변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강연회 모두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종료 후 행사장 내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강사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끼리 본인의 교류 활동과 관심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9월 7일 개최

특별 강연회

이웃 나라 사람들과 만나다 — 나와 한국

강사: 사이토 마리코

(한국어 번역가)



문학을 통한 한국 이해를 주제로, '이웃 나라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본인의 경험부터 한국 문학의 토대가 되는 근현대사 배경까지 유머를 섞어가며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강연을 위해 준비한 한국 문학 북 가이드를 바탕으로, '정(情)'과 '리(理)'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연 후반부에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고전을 비롯한 한국 문학을 영화화한 작품 중 추천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이토 번역가의 제안으로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책을 고르는 기준'과 '번역가를 지망하는 사람을 위한 조언' 등 열띤 질문이 이어져 한국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 소감

- 명쾌하고 알기 쉬운 강연에 문학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국 서적을 읽는 것은 그 나라의 지혜와 사람을 만나 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 그동안 많은 한국 문학 작품이 일본에 소개되면서 읽고 싶은 작품은 계속 늘어났지만, 시대 배경이나 사상이 어려울 것 같아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그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토크 세션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 교류의 미래>

12월 23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토크 세션 <국교정상화 60주년과 한일 교류의 미래>를 도쿄 도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평소 한일 양국의 각종 교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과 본 기금 대학생 방한단 OB·OG 등의 일본 청년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한국 뉴리더 방일단' 단원인 대학생 32명에게, 국교정상화 이후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토대로 향후 양국 간 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행사 서두에는 이번 행사장인 '국제문화회관'의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박철희 전 주일한국대사가 행사장에



오구라 카즈오 국제교류기금 고문의 기조 강연

참석한 청년들에게 “미래의 한일 관계를 짚어질 여러분에게 기대가 크다”는 취지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1 부 에 서 는 외교관으로 한일 관계에 오랜 기간 종사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역임한 오구라 카즈오 국제교류기금 고문이 강사로 나서, 청년들이 양국의 미래를 생각함에 있어 역사를 아는 것의 중요성과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등에 대해 실례를 들어 강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나베 메이 학생과 이토 코키 학생이 한일 관계에 얽힌 자신들의 유학 경험과 생각을 관련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김경묵 와세다대학 교수의 진행 아래, 행사장에 참석한 한일 양국의 청년 약 60명이 한일 관계의 과제와 교류 활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두에 김 교수는 다나베 학생의 '한일 럭비 교류'에 관한 발표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에서의 '노사이드(No-side)'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라고 참가자 전원에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 후에도 김 교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교류 사업에서의 '만남'이 '그 후 몇 개월간 SNS상의 대화'로만 끝나버리는 교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스포츠 선수 등의 유명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 혹은 주변에 그러한 소재는 존재하지 않는가?”와 같은 제언을 연달아 던지셨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두 차례에 걸친 한일 합동 소그룹(7~8명) 토론(각 15분 정도)을 거쳐 아래와 같은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일 합동 그룹으로 토론하는 모습

- 내가 지금까지 참여해 온 한일 교류 행사에서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한편으로는 문제를 의식하지 않아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모순된 생각도 떨쳐낼 수 없다.
- 일본인 친구를 서울 시내에서 안내했을 때, 역사를 둘러싼 미묘한 감정의 엇갈림을 느꼈다.
- 해방 전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할아버지가 80년 만에 한국에 가서, 예전에 살았던 집의 현재 주민(1940년대 일본에서 태어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국가를 초월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역사'를 실감했다.
- 열정을 가지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길이 되고, 나아가 양국 관계의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세션 마지막에 김 교수는 역사를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개인의 관계로 바라보고, 그 경험을 주변과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로 인해 “설령 싸우더라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 “한일 간의 '노사이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정리와 함께 2시간 반에 걸친 논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한일 청년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깊게 친목을 다졌습니다.

일한문화교류기금에서는 이번과 같은 한일 청년들의 진지한 '대화의 장'을 앞으로도 계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교류 사업

한국 청년 방일단 제1단

(테마: 후쿠시마와 홋카이도의 한일 교류)

2025년 7월, 한국 청년 방일단 제1단(대학생) 일행 30명이 후쿠시마와 홋카이도를 찾아 현지 분들과 교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요약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NPO 법인 후쿠칸네트> 정현숙 이사장의 강의 청강

일정 전반부에는 후쿠시마현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청을 예방하여 현의회 한일우호의원연맹 의원들에게 양국 국기가 그려진 특제 '시라카와 다루마(행운을 기원하는 전통장식품)'를 선물 받았고, 현 직원에게는 현의 개요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건에 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건을 위한 법적 지원이 있는가', '일본 국내에서 후쿠시마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피난 이재민의 귀환율, 재건 우선순위 등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질문이 쏟아졌으며, 솔직하고 정중한 답변을 통해 매우 유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세대 간의 교류도 진행되었습니다. 후쿠시마대학 캠퍼스 투어와 학생 식당 이용, 아카베코 채색 체험 등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 하루 종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인과의 교류가 처음이라는 후쿠시마대학 학생들도 많았는데, 양국 학생들이 서로 평생의 추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쿠시마대학 학생들과 아카베코 채색 체험

또한, 대학생 방한단 OB-OG를 포함한 현지 대학생들과 아이즈와카마츠시에서 필드워크도 실시하였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츠루가성, 아이즈 무가 저택, 나노카마치 거리, 이모리야마 지역 등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아이즈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와 한국의 교류에 25년 이상 힘써 온 'NPO 법인 후쿠칸네트'에서 시민들과의 여름 축제를 열어 주셨습니다. 축제에는



후쿠시마 시민들과의 교류회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학생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약 30명이 모여, 단원들과 함께 나가시소멘, 오코노미야키 등을 맛보고 본오도리(일본 전통 춤)에 참여하는 등

날짜	방일단 일정 소개
7/8	센다이 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강의】 의무성
7/9	후쿠시마현 이동, 【예방-강의】 후쿠시마 현청 【강의】 NPO법인 후쿠칸네트 정현숙 이사장
7/10	【학교 방문-교류】 후쿠시마대학
7/11	【시찰교류】 후쿠시마 근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아이즈와카마츠 지역 필드워크 【교류】 후쿠시마 시민과의 교류회
7/12	홋카이도 이동, 홈스테이 대면식 후 홈스테이 시작
7/13	홈스테이(전일)
7/14	【학교 방문-교류】 홋카이도교육대학 삿포로 캠퍼스
7/15	【예방-강의】 홋카이도청, 【예방-강의】 주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찰】 한일 야구 교류 현장, 액션 플랜 및 소감 발표회
7/16	신치토세 공항 출국

활기찬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풀뿌리 시민 교류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환대에 단원들은 크게 감동하여 후쿠시마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물론, 후쿠시마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일정 후반부에는 홋카이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삿포로에서 2박 3일간 홈스테이를 하고 홋카이도교육대학에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대학 방문 시 실시한 의견 교환의 자리였습니다. 일본 측 학생이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해 한국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다양한 시설을 방문한 경험을 공유하며, "진정한 한일 우호를 위해서는 문화, 젊은이들의 교류뿐만 아니라 역사 인식과 역사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은 단원들의 큰 공감을 사며 뜨거운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교류를 마친 단원들은 소감 발표회에서 "후쿠시마에 가도 괜찮을까 하는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나 자신도 솔직히 두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방문하니 한국에서의 이미지와 정반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고, 후쿠시마 사람들과 접하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 "후쿠시마는 이미 복구되었으며 그 회복력에 놀랐고, 식품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치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귀국 후에 잘 전달하고 싶다", "후쿠시마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며 여러 단원들이 힘찬 포부를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교육대학에서의 교류에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는 학생도 많았으며, "민감한 문제이지만, 한일 청년들이 서로 배워가며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이어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꼈다. 침묵이 가장 좋지 않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단원도 있었습니다.

이번 방일단은 매일 같이 새로운 만남과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큰 환영과 활발한 의견 교환, 밀도 높은 교류를 경험하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걸맞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교원 교류 사업 후속 교류로의 확장

한일 양국의 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일 학술 문화 교류 사업'은 매년 6월에 한국 교원을 일본에 초청하는 방일단, 8월에 일본 교원을 한국에 파견하는 방한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일 교원 간의 교류는 온라인·대면 교류를 거쳐 후속 교류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원이 방일 중에 방문한 츠키시마제1초등학교(도쿄도 주오구)에서의 교직원 좌담회 모습



한국 교원이 방일 중에 고마가와초등학교(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서 모의 수업을 실시하는 모습

등을 통해 일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 소재한 고마 신사 시찰에서는 고대 한반도와 깊은 인연이 있는 구 고마군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교원 방한단은 방일단과 마찬가지로 제1단은 초등학교 교원, 제2단은 중·고등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총 65명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방한 중 학교 방문에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 등에 관한 모의 수업을 실시하거나 교직원과 의견을 나누며,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일 학술 문화 교류 사업'은 방일·방한 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2024년도 이후부터 방일단과 방한단 기간 사이에 온라인 교류 1회, 교원 방한단 실시 중에 대면 교류 1회, 방한단 실시 후에 다시 온라인 교류 1회 등 총 3회의 한일 단원 간 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실시한 '한일 교원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서 착안하여, 코로나

2025년도 교원 방일단은 6월 3일부터 11일까지 8박 9일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교류의 발자취 탐방 및 일본 교육 현장 시찰'이라는 주제 아래, 초등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1단과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제2단 총 95명을 맞이하여 사이타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일행은 문부과학성의 강의 청강, 각종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 시찰 등을 통해 일본의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을 폭넓게 이해함과 동시에, 일반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일본 교원이 방한 중에 서울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에서 모의 수업을 실시하는 모습

상호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짜		일정 소개(발체)
방일단	6/3 ~ 6/11	【강의】 일본 문부과학성 【시찰】 이수현 씨 추도·현장비 답사를 포함한 신오쿠보 필드워크
		【학교 방문·교류】 제1단: 주오구립 츠키시마제1초등학교 히다카시립 고마가와초등학교 【학교 방문·교류】 제2단: 후추시립 후추제4중학교 이바라키현립 다케조노고등학교
		【시찰·강의】 고마 신사, 홈스테이, 성과 보고회
	7/19	【온라인 교류】 한일 학술 문화 교류 사업 방일단/방한단 참가자 간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방한단	8/20 ~ 8/26	【학교 방문·교류】 제1단: 부천중초등학교, 제2단: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 방문·교류】 서울 해누리초중이음학교
		【대면 교류】 홈스테이(방일단 참가 교원 등의 자택 방문) 【강의 청강】 한국 교육부 【시찰】 파주 비무장지대(DMZ), 성과 보고회
		【온라인 교류】 한일 학술 문화 교류 사업 방일단/방한단 참가자 간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12/6	

이전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실시하던 교원 방일·방한 사업을 개편한 것입니다. 한일 교원이 방일·방한 사업 참여를 통해 배운 내용을 근무 학교 수업이나 동료 등에게 환원할 뿐만 아니라, 교원 스스로가 한일 교류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실감함으로써 학생 교류로 한일 교류의 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한일 교원 교류는 7월 중순에 방한단 온라인 사전 설명회와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교류 중에는 초·중·고 등 학교급별로 나뉜 20개 그룹의 한국 교원이 방일단으로 일본 학교를 시찰하였을 때 느낀 점을 시작으로, 교수법, 교재, 근무 환경, 학부모 대응 등 한일 양국 교육에 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음 달로 다가온 대면 교류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2회 교류는 일본 교원 방한 시에 홈스테이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한국 측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의 노력으로, 교원 방한단 참가자의 홈스테이 가정 중 절반 정도가 교원 방일단 참가자 가정이었습니다. 한국 교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교육 현장을 넘어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알아가는 다채로운 교류가 펼쳐졌고, 진정한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열린 마지막 제3회 교류에서는 '교원 간 친목 도모'와 '학교 간 교류 파트너 찾기'라는 취지를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공식 행사 종료 후에도 자발적인 후속 교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간 교류가 시작된 사례도 있어, 본 사업은 한일 교류 인구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원이 방한 중에 방일단 참가자였던 한국 교원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모습



방일·방한 후 진행된 한일 교원 온라인 교류 모습

고등학생 교류 사업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류(테마: 농업)

2025년도 고등학생 사업 중 작년부터 시작된 직업계 고등학생 교류를 소개합니다. 올해는 '농업'을 테마로 방일단/방한단 상호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업계 고등학생 방일단]

한국 농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약 50명의 주요 방문지는 와카야마현이었습니다. 과일 왕국으로 불리는 와카야마현. 방일단의 방문 시기인 9월 하순은 포도와 감이 제철인 시기로, 농가 분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더 좋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듣고 실제로 수확 체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포도 농가에서는 종이봉투에 싸인 포도 한 송이 한 송이를 밑에서 들여다보며 수확물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노고를 실감하였고, 감 농가에서는 일본에만 있는 품종인 큼직한



쌀 농가 시찰 시, 단원이 콤바인을 직접 조종하는 모습



와카야마현립 미나베고등학교 방문 모습

감을 직접 수확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 추수 시기였기에 콤바인을 이용한 벼 베기 체험도 진행하였습니다.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일본 유명 농기계 제작회사의 콤바인에 대해 배웠는데, 실제로 벼를 베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교류로 진행되는 직업계 고등학생 방한단의 파견 학교인 와카야마현립 미나베고등학교도 방문하였고, 교내 시설 (농장, 과수원, 목장, 가공 시설 등)을 견학하며 일본 농업고등학교의 특색에 대해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조리 전공 학생들이 만들어 준 도시락을 먹으며 학교 생활과 양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학생들도 점차 마음을 열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미나베고등학교가 있는 미나베초는 일본 최고의 매실 생산량을 자랑하며, 세계농업유산인 '미나베·다나베 매실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지역입니다. 특히 매실의 대표 품종인 '난코우메'는 미나베고등학교(약칭 난코)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탄생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학교에 근무하던 다케나카 카츠타로 교사가 우량 매실

날짜	일정 소개(발췌)
방일단 9/21 9/27	【강의】 한일 관계에 대하여
	【테마 시찰】 포도 농가, 쌀 농가, 감 농가 (농작업 체험 포함)
	【학교 방문·교류】 와카야마현립 미나베고등학교
	【강의】 세계농업유산 <미나베·다나베의 매실 시스템>
방한단 11/19 11/25	【테마 시찰】 미나베초 매실 진흥관, 홈스테이, 성과 보고회
	【학교 방문·교류】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2일간 실시)
	【시찰】 서울 농업박물관, 홈스테이
	【시찰】 파주 비무장지대 (DMZ)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시찰·교류】 경복궁, 성과 보고회

연구에 매진할 때, 원예과 학생들이 연구를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학교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난코'라 명명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생 방한단]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방문 시, 모형을 조립하며 스마트팜 설비에 대해 배우는 모습

앞서 언급한 미나베고등학교 학생 약 50명으로 구성된 직업계 고등학생 방한단은 서울 농업박물관 (농협중앙회 설립)에서 한국 농업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이틀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 학생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현대 한국 농업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분야를 선택한 학생들은 첫날 일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을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스마트팜에 관한 강의를 듣고 농산물이 실제로 출하되기까지의 공정을 견학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프로젝트 발표 모습

실제로 플라스틱 모형과 기판을 조립하고, 키우고 싶은 식물의 생육 환경을 조사하여 PC 조작으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작업에 애를 먹거나 케이블이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등 그룹마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난관에 부딪혔지만, 모든 그룹이 팀워크를 발휘하여 시간 내에 완성시켜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틀간의 교류에서 양국 학생들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나 생각의 차이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소감을 들려주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었을 때, 한일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등 이번 교류를 계기로 새로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학생 교류 사업

일본 외무성·대한민국 외교부 주최 상호 파견 사업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를 테마로, 한일 외교 당국 주최로 상호 파견 형식의 방일·방한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대면 교류 외에도 각각의 방일, 방한 전후로 두 차례의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여, 한일 참가자들이 총 4번에 걸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첫 만남]

9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 만남에서는 한일 각각 4명씩 7개 그룹으로 나누어 Zoom을 통해 교류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첫 만남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긴장한 모습도 보였으나, 자기소개 등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공통점을 찾아가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대학생 방한단]

10월 10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실시한 방한단에서는 서울에서 그룹별로 필드워크를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차례 교류한 덕분에, 한국 학생들이 집합 장소인 회의실로 들어오자 서로 손을 흔들며 재회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드워크 시작 전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이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필드워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치나 미디어를 통해 품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얼마나 평면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직접적인 대화가 편견을 없애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실제로 만나 소통하는 경험이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번 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이 인연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다”와 같은 소감을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만나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경험이었습니다.



【대면 교류】서울에서의 그룹별 프로젝트 모습

날짜	일정 소개(발체)
9/20	【온라인 교류】 한국 대학생 방일단/일본 대학생 방한단 참가자 간의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방한단 10/10 ~ 10/18	【대면 교류】 한국 대학생 방일단 단원과의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필드워크
	【교류】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Seoul> 참가
	【예방】 한국 외교부 【예방】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대학 방문·강의·교류】 고려대학교 홈스테이, 고 이수현 씨 묘지 참배, 성과 보고회
10/25	【온라인 교류】 한국 대학생 방일단/일본 대학생 방한단 참가자 간의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방일단 11/5 ~ 11/13	【예방·강의】 외무성, 【시찰】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학교 방문·교류】 메이지대학교
	【대면 교류·시찰】 이수현 씨 추모·현창비 답사를 포함한 신오쿠보 필드워크, 일본 대학생 방한단 단원과의 그룹별 프로젝트 준비 및 발표
	【시찰·강의】 고마 신사, 홈스테이, 성과 보고회

\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Seoul /

단원들은 방한 기간 중인 10월 12일, 서울 COEX B홀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Seoul>에서 ‘와가라(일본 전통 무늬) 책갈피 만들기’와 ‘일본의 매너 & 문화 퀴즈’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한 한국분들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와가라 책갈피 만들기’ 코너에서는 방문객이 책갈피 모양의 종이에 다양한 무늬의 화지를 자유롭게 오려 붙여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 책갈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매너 & 문화 퀴즈’ 코너에서는 단원들이 방문객에게 퀴즈 형식으로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호평을 얻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Seoul>에서의 부스 운영

[대학생 방일단]

11월 5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실시한 방일단에서도 한일 참가자들 간의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쿄 신오쿠보에서 그룹별 필드워크를 실시한 후,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한일 양국 공통의 사회 과제와 문화 차이 등을 그룹별로 논의하고 마지막에 발표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매우 충실한 발표 내용과 훌륭한 팀워크를 통해, 총 4회의 교류 기회를 거치며 한일 참가자들이 더욱 깊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면 교류】신오쿠보에서의 그룹별 프로젝트 발표 모습

활동 보고

본 기금 주최 대학생 방한단 OB·OG에 의해 결성된 JKAF(Japan Korea Alumni Forum)는 자신들의 교류 사업 참가 경험을 살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JKAF(Japan Korea Alumni Forum) 대학생 방한단 OB·OG 조직



대표 인사 **데즈카 미즈키**(호카이도가쿠엔대학 4학년)

JKAF(Japan Korea Alumni Forum)는 한일 청소년 교류 사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 '교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취지 아래, 양국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한일 축제 한마당 in Tokyo> 참가, 한일 차세대 회의 개최, 온라인 토론 등을 통해 민간 차원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정을 다지는 데 힘써왔습니다.

활동을 거듭하며 새삼 느끼는 것은 '교류'란 단순히 이문화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와 사회를 되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일본과 한국, 서로 다른 가치관과 역사적 배경을 가진 양국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젊은이들 사이의 '연대'가 미래의 더 나은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JKAF는 과거의 교류를 미래로 잇는 가교로서, 멤버 한 명 한 명이 서로 배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동료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연간 활동 계획(2025년 4월~2026년 3월)

2025년

- 5월 보고회 겸 동창회
- 8월 온라인 교류 with KJAFB*
- 9월 한일 축제 한마당 2025 in Tokyo
- 10월 온라인 교류 with KJAFB*
- 11월 한일 차세대 회의 with KJAF**

2026년

- 1월 한일 차세대 회의 with KJAFB

* KJAFB : 부산 지역 대학생 방일단 OB·OG 조직
** KJAF : 서울 지역 대학생 방일단 OB·OG 조직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Tokyo

2025년 9월 27~28일 이틀간 도쿄에서 '한일 축제 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일한문화교류기금과 JKAF 부스에서는 '한국 친구와 이야기하자'와 '고구려 고대 의복 체험' 두 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스에는 이틀간 총 60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주셨습니다.

'한국 친구와 이야기하자' 코너에서는 JKAF 멤버 20명이 한국에서 온 방일단 멤버들과 함께 운영을 맡았습니다. 폭넓은 연령대의 방문객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 "교류를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한국 청년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등의 소감이 전해졌으며, 시종일관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고구려 고대 의복 체험' 코너도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방문객이 한국의 전통 의상을 체험하였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즐겁게 의상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며 스태프 일동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 단체 멤버, 자원봉사자가 하나가 되어 한일 문화와 세대를 초월한 교류의 장을 만든 것은 JKAF의 이념인 '교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를 구현하는 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모든 분과 운영을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JKAF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즐겁게 참여하고 한일 간의 이해와 우정을 깊게 다질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행사장에서 뵙 수 있기를 바랍니다.



JKAF 인스타그램도 꼭 팔로우해 주세요!



일한문화교류기금 찬조회원 제도 안내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에서는 찬조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회비는 강연회,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회를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찬조회원 목록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회원(6명)

小野正昭 (3) 鹿取克章 (3) 古賀信行 (3) 中江新 (3) 馬定延 (3) 渡辺浩 (3)

개인회원(40명)

阿部孝哉 安倍誠 飯島渉 磯崎典世 稲葉真岐子 林在圭 内田富夫 長久光 菅野修一
姜英淑 木畑洋一 小林直人 小針進 高麗文康 坂井俊樹 阪田恭代 酒勾康裕 櫻井浩
佐藤俊行 白川豊 塚本壮一 陽清学園・津谷正毅 都恩珍 西澤豊 波田野節子
墨の美術館・濱崎道子 日本民藝館・館長深澤直人 福原裕二 藤田昭造 藤本幸夫
堀泰三 實生泰介 松井貞夫 (2) 三浦むつ子 向修一 茂木敏夫 吉岡雅子 余田幸夫
和田とも美 匿名希望 (1名)

법인회원(1단체)

和光物産株式会社 (5)

* 2025년 유효 회원, 오십음도 순, 경칭 생략. 괄호 안의 숫자는 2차 이상의 납입 좌수.

찬조회원 제도의 종류와 회비

- 연회비 1구좌 1만 엔
- (1) 개인회원 1좌 이상
- (2) 특별회원 3좌 이상
- (3) 법인회원 5좌 이상

회원 유효 기간은 회비
입금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찬조회원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신청 바로가기



제25회 한일 역사가 회의 개최

2025년 11월 14일부터 3일간,
한일 양국 역사가 26명이 참여한 제
25회 한일 역사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소문과
가짜뉴스의 역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본 기금은 일본 측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회의 첫날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
주년 기념 강연회를 개최하여,
미야지마 히로시 도쿄대·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가 각각 역사가로서의 행보에 대해 강연하셨습니다.

본 회의는 한일 양국 역사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1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일본사, 한국사뿐만 아니라 유럽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양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활발한 의견 교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연회 내용을 포함한 이번 회의의 보고서는 2026년 봄 무렵까지 본 기금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38회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 방한단

본 기금의 고가 노부유키 회장을 비롯하여 이사·평의원으로 구성된 대표 방한단이 2025년 9월 24일부터 26
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인사 및 관계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향후 추진될 각종
공동 교류 사업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